



☞ 글 사진 이범의

서울중국신학원은 한국 최초의 중국 현지인을 위한 신학대학원으로 안성 대림동산에 자리 잡고 있다. 나는 이곳을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라고 부른다. 설립자이자 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이동화 목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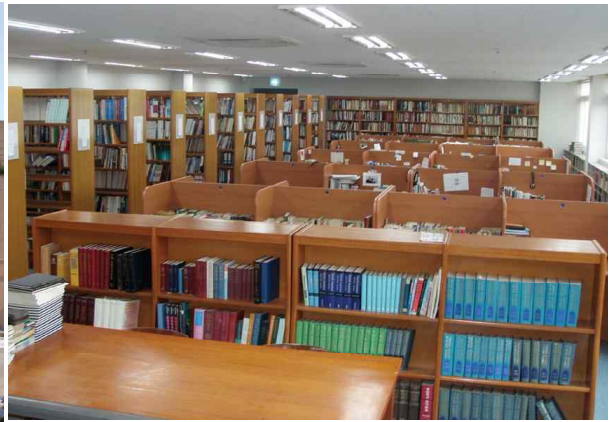
**한국에 중국 현지인을 위한 신학교를 설립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동화 원장: 80년대 후반부터 중국어문선교회를 섬기면서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선교 현장 소식을 듣거나 직접 수차례 방문하는 과정에 깨달은 것이 있었죠. 중국교회가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학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학교 설립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준비 과정에 들어갔어요. 2008년, 현재의 건물을 준공하여 마침내 입당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정말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신학원의 현황과 비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화 원장: 2004년 9월에 개교한 이래로 총 12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들 중 90%에 가까운





**서울중국신학원의 비전은 “성경중국 선교중국”이다.  
중국의 미래는 중국교회에 달려있고, 중국교회의 미래는 신학교육에 달려있다고 확신한다.  
중국교회가 건강한 신학교육의 터전에 서 있을 때라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학생들이 현재 한국과 이스라엘, 미국에서 석,박사 과정에서 지속적인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 개 학년 총 24명의 재학생이 있습니다. 중국교회가 시급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현지인 교수 요원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글로벌 시대에 맞게 영어와 중국어 위주 성경연구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택대학교의 행정적 지원과 함께 3년간 공동체생활을 하면서 말이지요.

앞으로도 중국 현지 교회의 현장이 원하는 일꾼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특히 도시 속 가정교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학교와 현장 교회와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고자 합니다.

서울중국신학원의 비전은 “성경중국 선교중국”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교회의 미래 역할은 세계선교라는 데 그 출발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중국의 미래는 중국교회에 달려있고, 중국교회의 미래는 신학교육에 달려있다고 확신합니다. 중국교회가 건강한 신

학교육의 터전에 서 있을 때라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선교의 성공여부는 ‘준비된 현장 사역자를 얼마나 배출해내는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잘 훈련된 현지인 사역자를 세우는 것은 외국인 선교사의 경우보다 지속적인 사역을 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는데 드는 비용이면 현지인 사역자 여러 명을 데려와서 교육할 수도 있다. 아니 제대로 훈련받고 헌신된 한 명만 잘 배출시켜도 그 영향은 훨씬 커질 것이다. 선교사는 현장 사역자를 발굴하고 양성하여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중국신학원이 미래지향적인 선교 패러다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선교에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W**



이범의 중국인(漢族)으로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에서 수년간 재직하다가 2001년 3월 한국으로 건너왔다. 백석대학교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고(MDiv, ThM, PhD과정 수료), 구약신학 전공으로 학위논문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서울중국신학원에서 도서관장 및 부설인 크리스천생활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섬기며 구약을 가르치고 있다.